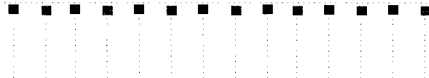


조금씩 그러나 앞서서 변화하는 일본의 화장실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 언어로 풍성한 삼림과 풍요로운 자연을 뜻한다는 “이도무(idom)리조트” 내의 통나무 코테이지가 필자를 한국의 폭서로부터 며칠간을 구해준 일본 홋가 이도의 숙소였다. 위도상으로도 북쪽에 위치하였지만 어윈 그대로 풍성한 삼림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진 숲 속의 휴식처는 문자 그대로 지상의 낙원이나 다름없는 환경이었다. 매년 한번씩은 업무관계로 일본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고 느끼고 배우는 바가 많아, 가끔씩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가지 앞서가는 일본의 화장실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지관리 부문



박정호
일본국립대학원 교수

일본의 화장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화장실의 위생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자동 세정 시스템, 공기 청정기, 난방 시설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보급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화장실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에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화장실은 청결함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화장실의 변화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이러한 화장실의 변화는 일본의 화장실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에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화장실은 청결함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화장실의 변화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소변기를 사용하는 일반시민도 소변기에 가까이 서서
 신경을 써가며 불안을 보는 조그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사진1 -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청소도구 보관실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사진2 - 화장실내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기록부



사진3 - 소변기 앞부분에 좀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다른 디자인의
 대형타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4 - 소변기 밑부분은 어느곳이나
 물품수납장으로 이용

었다.

1) 좀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변기의 경우 소변의 폭이 화장실 익취발생에 제일 큰 요인이 되는데 이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변기 밑에 다른 색깔의 대형 타일을 깔아 소변기에 좀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으며(사진3), 소변기 밑에 수건을 걸고 수건
 교환하는 등 그리고 소변 좌측 위치에 액정발레모습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도 들도 눈에 띄었다. 얼마
 전 일산동구청청사에서도 이 부분의 해결책을 위하여 의견을 자문하기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도기를
 만드는 제조 업체에서 공화국 측에서 소변 불의 방지를 위한 연구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특히 소변기를
 사용하는 일반시민도 좀더 소변기에 가까이 서서 신경을 써가며 불안을 보는 조그만 협조가 이루어지면
 훨씬 좋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2) 우리의 경우도 많이 개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면기 밑 부분을 간단한 청소용 구, 각종 보관함으로 갈
 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다. 유사한 같은 소규모 화장실의 경우도 거의가 소변기 밑 부분을 화장실 관리 청소
 도구 또는 악류의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사진4)

다음으로 계속...

